

‘잠녀학’정립·체계적 연구 필요

등록 : 2005년 11월 20일 (일) 21:00:36
최종수정 : 년 월 일 (월)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잠수학으로 접근한 잠수]

제주 잠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돼왔다. 제주 민요 중 대표적인 노동요를 이어오고 있는 데다 무속굿 등을 통한 춤과 의식, 타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제주 사회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잠녀’는 꼭 거쳐야하는 하나의 관문이었다.

제주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도, 독립을 위한 외침 속에서도, 제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콘텐츠로서도 ‘잠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잠녀이기에 이를 규명하고 학문화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잠녀학’ 또는 ‘해녀학’이라는 체계는 채 갖춰지지 않고 있다.

잠녀를 여성학이나 인류학, 사회학의 그릇에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양문명사적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라 곧 한계에 부딪혔다.

‘잠녀’ 속에 독특한 문화 예술이 녹아있는 것은 물론 그들을 통제하던 나름의 ‘룰’이 있는 등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기에 ‘학(學)’으로의 접근을 시도했고 현재는 ‘잠녀학’이 성립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학계 안팎의 중론이다.

잠녀에 대한 연구는 이미 80여년전부터 시작됐었다. 일제 강점 초기 일본 학자들이 잠녀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를 전후해 민속학적 접근을 했던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잠녀학’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1960년대 말부터. 학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강대원 선생이 자료를 수집해 집필한 「해녀연구」는 잠녀 연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학문적 접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조혜정 교수가 잠녀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시작하면서 ‘잠녀학’은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고 김영돈 교수를 비롯해 한림화·고창훈·좌혜경 등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잠녀 연구에 열정을 쏟아왔고 제주섬학회 등도 그 중심에 서왔다.

지난 2001년부터 3년에 걸쳐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해양문명사적 접근을 통한 잠수학의 가능성이 검증 절차를 밟아온 상태.

이제 내년부터 일본의 노리코 이치지 교수(에이지여대)와 한림화씨, 안미정씨(한양대 박사과정), 남아 프리카공화국 해안 연구 권위자 등이 포함된 연구진이 3년에 걸친 '한국 잠녀학'연구에 들어가기로 함으로써 잠녀학의 국제적 검증까지 받게 됐다.

'잠녀학'정립을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정작 제주도의 관심은 소박하다 못해 미진하다.

잠녀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어렵고, 고령화 등 맥이 끊길지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녀 노래 등의 전승 작업에 있어서도 그 정통성과 의미를 지켜주는 작업이 병행되지 않는 등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근대사 자료를 이웃 일본이나 미국의 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잠녀 역시 외국이나 타 지역 학자들의 도움으로 연구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특별취재반>